

잇단 악재에... 고민 깊어가는 민주당

순회 경선 파행이여 親盧-非盧 갈등 심각 '이-문 담합론' 제기... 이합집산 가능성도

12월 대선을 앞두고 각종 악재가 터지면서 민주당의 고민이 깊어가고 있다. 당장,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에 맞서 대선 정국의 반전 카드로 꼽혔던 전국 순회 경선은 모바일 투표 논란으로 인한 파행과 문재인 후보의 초반 3연승으로 '대세론'이 형성되면서 흥행은 사실상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여기에 경선 과정에서 친노(친 노무현)와 비노(비 노무현)로 당내 세력이 갈리는 것은 물론 '이-문(이해찬-문재인) 담합론'까지 제기되면서 갈등이 심각한 양상으로 확산되고 있다.

실제로 28일 경선이 정상화됐지만, 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들은 경선 파행 과정에서 모두 상처를 입은 상황이다. 문재인 후보는 '공정성' 시비로 1위로서의 '바람'을 일으키지 못하고 있으며, 비문(비문재인) 주자들은 경쟁력도 갖추지 못한채 당내 분란만 일으켰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됐다. 당은 당대로 경선 관리 부실로 대국민 사과를 하는 등 스타일을 구겼다.

이처럼 민주당 경선이 지리멸렬하게 진행되면서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대선 후보를 선출하더라도 취약한 경쟁력으로 장 밖의 안철수 교수에게 야권의 대선 주자 자리를 헌납하지 않느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정치권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야권의 대선 주자를 차지하지 못한다면 심각한 내홍에 직면할 것이라는 관측을 제기하고 있다. 지도부 책임론과 친노-비노의 갈등 확산, 대선 주자를 내지 못하는 불임 정

당 논란 등으로 또다시 분당과 창당 등 이합집산이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 대선 주자인 박근혜 후보는 광복의 통합 행보로 지지율이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어 민주당을 더욱 초조하게 만들고 있다. 박 후보는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틀 날 예상을 깨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전격 참배한데 이어 다음 날은 김대중 전 대통령 부인 이희호 여사를 예방하는 등 정치적으로 대립했던

이들과 '대통합' 행보에 나섰다. 또한, 박 후보는 민주당이 전국 순회 경선의 파행을 거듭하는 동안 상대적 취약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20~30대 계층 공략에 나서는 한편, '쇄신과 화합'을 키워드로 하는 선대위를 구성하는 등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 지도부는 경선 정상화를 계기로 등 돌린 민심을 되돌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당의 파행을 처절하게 반성하며 다시 국민과 함께 민심의 바다로 가겠다"면서 "전화위부의 계기로 삼아 두 번 다시 국민을 실망시키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특히, 당내 일각에서는 경선이 정상화 됐다는 점에서 조만간 반전의 계기를 찾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당내 경선에서 좀처럼 동력을 찾기 어려운 상황인데다 느닷없는 공천 헌금 논란까지 부상하면서 민주당이 당분간 대선 정국에서 고전을 면치 못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경선이 바람을 일으키지 못하는 등 전반적으로 상황이 녹록치 않다"며 "하지만 경선 이후, 안철수 교수와의 후보단일화 과정에서 민주당의 지력이 나타나게 될 것이며 이를 통해 정권 창출을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가 28일 서울 종로 청계천 6가 전태일 다리를 방문, 헌화를 하려다 김정우 급속노조 쌍용차 지부장으로 부터 항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문 분향소부터 방문하고 분향하는 것"이라며 쌍용차 정리하고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재단방문 무산 후 박 후보는 청계천 6가에 있는 '전태일 다리'로 이동했다. 전태일 다리는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 이소선 여사의 노제와 김근태 민주당통합당 상임고문의 영결식 등이 치러진 곳이며 야권 인사들이 공직 출마를 할 때마다 찾는 상징적인 장소이다.

박 후보는 전태일 동상 옆에 위치한 전태일 열사 분신장소에 잠시 머문 뒤 3분 만에 현장을 떠났다. /연합뉴스

“공천 희망자 휴대전화에 민주당도부 명의 메시지”

검찰, 공천헌금 의혹 수사서 발견 박지원 원내대표도 발신자에 포함

민주당통합 공천헌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공천희망자인 강서기실 관리공단 이사장 이모(56)씨의 휴대전화에서 민주당 지도부 인사들 명의 발신된 문자메시지(SMS) 여러 건을 찾아내 수신경위를 확인 중인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최재경 검사장)는 4·11 총선 때 비례대표 공천을 약속한 인터넷방송 '라디오21' 편성에서 민주당의 지력이 나타나게 될 것이며 이를 통해 정권 창출을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

문자메시지 발신자로 돼 있는 민주당 인사 중에는 박지원 원내대표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원내대표가 발신자로 된 메시지는 '비례대표 심사에서 도움을 주겠다'는 취

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씨의 휴대전화에 남은 문자메시지 기록이 실제로 민주당 지도부 인사들이 보낸 것인지, 아니면 양씨 또는 제3자가 명의를 도용해 가짜 메시지를 보낸 것인지 확인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도 수사대상에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양씨가 이씨 등 3명으로부터 받은 32억여원을 보관하고 있던 법인 명의 모계좌와 여타 연결계좌 등에 대한 추적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양씨는 애초 이씨로부터 10억원, 세무법인 대표인 또다른 이모(57)씨로부터 18억원, 부산지역 사업가 정모(53)씨로부터 12억원 등 총 40억원 을 받기로 약정했다. 양씨는 그러나

이씨로부터는 기존 차입금 상계분을 빼는 등 2억8000만원만 받았다. 양씨는 지난 1~3월 나머지 두 명으로부터 받은 30억원에 합쳐 1·2등급권에 개설한 계좌에 입금했다.

검찰은 양씨가 선거홍보업체 명의 로 개설한 이들 모계좌에서 현금 또는 계좌이체 형태로 돈을 대부분 인출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현재 계좌추적 초기 단계여서 자금이 민주당 측에 유입됐는지, 다른 곳으로 흘러들어 갔는지는 파악하지 못한 상태다.

이씨 등 3명은 "양씨가 투자를 유치하면서 민주당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힘써줬다고 했으나 공천도 받지 못했다고 돈도 돌려받지 못했다"며 양씨에게 사기를 당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양씨는 정식 투자계약을 체결했을 뿐 공천에 관해 전혀 언급한 바 없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황당한 주장”

박지원, 양경숙 공천헌금 개입 의혹 반박

민주당통합 박지원 원내대표는 28일 인터넷 방송국 '라디오 21' 전 대표인 양경숙씨가 4·11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공천 약속 대가로 수십억원을 수수하는 과정에 개입한 의혹이 제기된 것에 "황당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내 이름을 거론하면서 비례대표 얘기를 주고받았다면 이것은 그들 간 이야기이지, 나와는 관계가 없다"며 "금전거래도 그들끼리 이뤄졌다면 이뤄졌지, 나와는 관계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양씨와 관계에 대해 "작년 말 정치권 소개로 처음 만났다"고 말했다. 당시는 박 원내대표가 민주당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담대회를 준비하면서 여러 차례에 도움을 요청하던 때다.

박 원내대표는 "양씨는 (서울 강서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인) 이모씨와 함께 1~2차례 만났고

3월 중순께 이 두 사람과 (모 세 무법인 대표) 이모씨, 사업가 정모씨와도 저녁식사를 했다"며 "그분들은 당시 제게 많은 협력을 하겠다는 얘기를 주로 했다"고 전했다.

그는 또 "저녁식사 후 하루나 이틀 지나 세무법인 대표 이씨와 정씨가 각각 후원금 500만원을 보내왔고, 이를 법적 절차에 따라 후원금 처리했다"며 "양씨도 지난 2월께 후원금을 보낸 적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 원내대표는 "당시 저녁 식사 자리에서 비례대표 얘기는 일절 없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도 양씨를 통해 수십억원을 주고 비례대표 신청을 했던 이모, 정모씨 등 3명이 비례대표 신청서를 제출한 것은 사실이지만 모두 1차 서류심사 단계에서 탈락했다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새누리 권성동 의원 민주, 윤리위에 제소

민주당통합당은 28일 야당을 '살인범', '강간범'에 비유한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다.

권 의원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국동 사저 특검' 합의와 관련해 야당이 특검을 추천케 한 것을 두고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살인범이나 강간범이 자신한테 유리한 재판부를 지정한 것과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문자가 살인은 민주당 탓"이라고 하는 등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의 막말 행진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무조건 나쁜 이미지를 덧씌우고 보자는 여당의 네거티브에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우 원내대변인은 "국민적 의혹을 받는 사안을 국민을 대신해 검찰에 고발했고 수사가 미진해 특검을 관철했을 뿐"이라며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파악하지 않고 고발자인 민주당에 '살인범', '강간범' 타령하는 저의가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마음의 소통없이 방문 안돼”

전태일 재단 찾은 박근혜 유족들 강력 거부로 무산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가 28일 서울 종로구 창신동에 위치한 전태일 재단을 방문할 예정이었으나 유족들의 거부로 방문이 무산됐다.

갈색 정장 차림의 박 후보는 이날 오전 10시25분께 현장에 도착했으나 전태일 재단으로 통하는 골목길에 유족과 시민단체, 기동경찰 및 쌍용차 노조원 등 60여명에 의해 막혀 있

자 박근혜 재단 사무국장과 간단하게 통화한 뒤 4분 만인 10시29분께 발걸음을 돌렸다.

전태일 열사 유족들은 박 후보 방문에 앞서 성명을 내고 "너무 일방적인 통행이라서 맞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며 방문거부 의사를 밝혔다. 전태일 열사의 동생 전태삼씨는

"사전에 사람끼리 마음의 소통 없이 행동하는 박근혜 의원의 방문 자체가 너무 일방적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자기 생각을 모든 사람에게 정당화하려는 독선을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나라에서 우선 시급한 것은 국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쌍용차 동차 22명의 노동자의 죽음이 있는

부동산 경매, 유동화 자산매각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ASSET KOREA since 2005
경매에 관한 모든 상담 062-236-3400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14-73 (2층) (법원 앞에서 70m 변호사회관 옆 건물) 또는 (지산 주유소에서 법원 쪽으로 20m)
최고수익률 / 세금계산서발급(양도세감면) / 신속한명도 / 정확한권리분석 / 최상의대출

금주의 추천 물건 대표이사 010-7570-7525

월곡동(불림정) 대1787㎡ 감정가 22억 최저가 12억4천	쌍암동(대지) 대1787㎡ 감정가 17억5천 최저가 9억9천	치평동(모텔) 대124㎡, 2715㎡ 감정가 16억 최저가 8억2천	화순오곡(근린시설) 대83234㎡, 24280㎡ 감정가 49억3천 최저가 12억1천	화정동(역시점) 대1094㎡, 24489㎡ 감정가 41억5천 최저가 21억2천	장성행행(공원) 대3398㎡, 801㎡ 감정가 15억 최저가 6억7천	도산동(교회) 대772㎡, 23786㎡ 감정가 9억5천 최저가 4억2천
--	--	--	---	--	---	--

유동화 자산매각 대표이사 010-7570-7525

● 군산(비오공정) ▷ 대지 3025평 ▷ 건물 597평 ▷ 감정가 7억 9944천 ▷ 매매가 38억 (협의후결정)	● 원주 봉동(대형공원) ▷ 대지 7125평 ▷ 건물 5465평 ▷ 감정가 135억 ▷ 매매가 70억 (협의후결정)	● 금동(목욕탕) ▷ 대지 91평 ▷ 건물 303평 ▷ 감정가 7억 10억 ▷ 매매가 4억7천(협의후결정)
● 용문동(하이소포텍) ▷ 대지 4076평 ▷ 건물 12943평 ▷ 감정가 515억7천 ▷ 매매가 160억(사설비별도)	● 월산동(주유소) ▷ 대지 230평 ▷ 건물 105평 ▷ 감정가 15억5천 ▷ 매매가 11억 (협의후결정)	● 군산 (공장) ▷ 대지 1999평 ▷ 건물 687평 ▷ 감정가 25억 ▷ 매매가 17억(협의후결정)

근린시설/원룸 정현호이사 010-5879-0005 숙직시설/상가 김규석이사 010-6654-6888 공장/토지 김중원이사 010-8227-7759

도시형 생활주택 부지 매매
▶ 쌍촌동 운천저수지 건너편 명지아파트 옆
대지 427평(매매가 7억6천860만원)
평당 180만원

아파트/빌라 박미림팀장 010-9900-3002 주택/재개발 김수희 중개사 010-8567-4600 근린주택 손해연이사 010-9611-2817

당사 보유 부동산 매각
· 광주대일(지하)호프 분식60명, 원동형빌라(산수동, 백운동)5칸, 게임동 E마트1층1칸
대출 + 보증금공제후 실인수가 1천만원 (H.010-6654-6888)

현대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 후 24년째 중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물건과 고객을 확보하고 있어 항상 신속하고 친절하며 책임감을 갖고 고객 여러분의 만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급히 구하는 물건(매매나 임대)
(건물구함)

- 일반상가 건물: 3억에서 50억
- 모텔 및 목욕탕
- 고시원
- 다다구주택(원룸, 투룸, 소규모)

〈토지구함〉

- 지역: 광안구 도천동 하남동 장수동
- 면적: 200평~300평, ● 용도지역: 자연농지 ● 용도: 주차장
- 최고용도 300평 정도 대형저택(원룸)가능지역 광주시내 전역

〈모텔 매매〉

- 서구 객실 20개 대출 4억2천 매도가 8억5천 만원

〈상무지구 토지매매〉

- 매도가 30억 보증금 7억 임대료 1400만원
- 매도가 45억 보증금 6억 월9300만원

〈상무지구 토지매매〉

- 중심상업지역 178평, 360평 매매가 협의 후 결정
- 자연녹지 353평 30m 도로점, 농지전용 원룸, 매매가 협의 후 결정

〈토지 매도〉

- 광안구 도천동 자연녹지지역 2397㎡(725평) 평당 96만원
- 공장 창고용도로 적합
- 비오동 자연녹지 11,463㎡(3,468평) 평당 70만원

〈시의 매도물건〉

- 물류창고부지: 장성군 황해면 장성CC에서 2.5km 계획관리지역 3200평 평당 45만원 농지전용 건축허가 필

T. 062) 371-1900, 010-2006-0115
상무우리병원에서 50m 지점 www.85658949.co.kr

가 은 공인중개사

급 구

☆전남지역☆

업 전 양어장 (폐업전 포함)

잡종지

즉시 매입가능!

상무지구 랜덤피아 사거리 010-8289-8549

대인동상일부동산

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을 빨리 팔고 싶으시거나 임대 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저희 부동산은 오래도록 광주시내권 및 시외순원으로 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사실분과 원실분 손님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소유하고 계신 건물을 팔거나 임대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일해드리겠습니다.

다만, 사장님께서 저희 부동산에 내놓으신 소중한 건물은 철저하게 비밀보장하여 조용히 팔아드리겠습니다.

(FAX)223-1772 현 011-602-2532
(광주광역시 남동구, 대인동 순천역사거리내)

첨 단 신창동 신가동

상가 건물

파실분환영!
(8억 ~ 12억계약가능)
《매수자 대가중!》

광주원룸매매

원룸 파실분 매환영!
(매수자 다수 대가중)

《사실분도 문의환영》
(수익률 높은 원룸 많이 있습니다)

광주 원룸 토지매매

파실분 → 빠른 계약가능!

사실분 → 원하는 땅 구해드립니다!

우림공인중개사
일곡지구 중심상가 밀집지역내 위치

010-3622-6076
062)576-8484

상무랜드공인중개사

상가(매매)

- 봉선동 1층복합 상가 323평 평당 1,200만원(38억)
- 보종동 20억 월임대료 1,200만원
- 봉선동 1층복합 상가 121평 평당 1,730만원(21억)
- 보종동 2억 월임대료 1,200만원
- 첨단 1층복합상가 205평 평당 707만원(14억5천만)
- 임대보증금 1억
- 월임대료 1,000만원
- 두암동 7층건물 164평 건물400평(31억)
- 임대보증금 95억 월임 500만원

토 지(매매)

- (상무지구)469㎡(142평)-매가 평당 1,200만원 (유형가능,석당영업중)
- (상무지구)833㎡(252평)-평당 1,200만원(상무지구) (변화가 시키려나)
- (상무지구)1,980㎡(600평)-평당 1,200만원(상무지구) (유형가능)
- (상무지구)3,400㎡(약1,000평) 평당 750만원(시정양) (회사사무,오피스빌딩 적합)
- (동림지구)중주거지 운암-하남 간대보변4,470㎡(약1,352평) - 평당330만 (메식장 적합)

맞춤주문 받습니다.
원하시는 물건 찾아 드립니다.
정리하십시오.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우편이나 전화 주십시오★

(FAX)383-5221 현 011-609-5221
(상무지구 이마트 지하 1층)